A Fairy Tale Can Come True: Stories from Tip Toland 동화가 현실이 되는 팁 톨랜드 이야기

> Judith Schwartz 쥬디 슈왈츠

Tip Toland has never shied from confrontation. For decades extraordinary characters in clay have emerged from her studio - characters that often confront subject matters most of us would find too personal to share privately let alone expose in the venue of a public gallery.

Her issues are painful, humiliating, often embarrassing. Yet she remains steadfast in her quest to portray them. In her astonishingly convincing revelations of our collective selves, she forces us to see us what we probably already know intuitively, but often lack the courage or resolve to reveal.

In one sense, Toland may be thought of as a satirist in the guise of a visual artist who focuses on the duplicity of the human condition. Using psychological introspection, dream imagery, fairy tales and the subconscious, she reveals an unerring concern for the human condition in all of its sometimes-unappealing manifestations.

Her themes are about loneliness, vanity, helplessness, rage, aging, isolation, and depression -there are few stones left unturned. She also had, from time to time. confronted social and political issues, exposing inequities to which we often turn a blind eye - forcing us to see those who are on the fringes of society, marginalized victims of the social condition, the vulnerable plight of refugees, poverty. suffering and disorientation. Yet as disturbing and uncomfortable her gaze, Toland's genius is her ability to posture her characters in ways that provoke deep feelings of empathy, identification, and compassion.

As a true portrayer of the human condition, she seduces the viewer into her world using ridicule, sarcasm, wit and humor 팁 톨랜드(Tip Toland)는 마주하기를 마다한 적이 없다. 지난 수 십년 간 작업실에서 탄생시킨 작가의 점토작품들은 일반인이라면 공유하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주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작가는 이에 맞서 공공 갤러리 전시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톨랜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당황스럽기까지 한 주제를 다루지만, 이러한 주제를 탐색하는 여정을 꾸 준히 밟아왔다. 집단 자아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드러내 면서 작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으나 드 러낼 용기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도록 이끈다.

어떤 의미에서 톨랜드는 인간 조건의 이중성을 중시하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가장한 풍자가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심리적 성찰, 몽환적 상상력, 동화, 잠재의식을 통해 작가는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작품을 통해 인간조건에 관한 정확한 우려를 드러낸다.

고독, 허영, 무력감, 분노, 노화, 고립, 우울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석기를 가공하지 않은 채로 남겨둔 경우 는 드물다. 또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불평등을 드러 내는 사회, 정치적 이슈와 마주하여 사회 소외계층, 사 회 여건에서 소외된 희생자, 곤경에 처한 난민, 빈곤, 고 통 및 방향상실에 처한 이들을 억지로 바라보게 만든 다. 작가의 시선은 충격적이고 불편할 수 있지만, 톨랜 드의 천재성은 공감, 인지, 연민의 깊은 감정을 캐릭터 를 통해 유발하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인간 조건을 진정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작가는 조롱, 빈 정거림, 위트, 유머를 활용하여 사회 개혁가로서 교묘히 조작된 작품 세계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실제 톨랜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비주얼 철학자로서 너무나도 설득력 있고, 진솔하며,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인간 조건의 보편성을 끌어냄으로써 관객을 꿰뚫고, 관객이 변화되도록 노골적으로 이야기 를 펼친다.

랄프 시케스의 통찰력이 가득한 저서 『분개한 시선』에서

putting these cunning manipulations to work as a social reformer. Indeed, Toland is a visual philosopher who tells it as it is and unabashedly does so in ways that are so compelling, so honest and recognizable that she captures the universality of the human condition that inevitably leaves the viewer transfixed and transformed.

In Ralph Shikes insightful book, The Indignant Eye, he expresses the sort of zeitgeist that aptly describes Toland's oeuvre. "Such individuals have used the most effective weapon at their command, their art, to needle the Establishment.

duel with oppressive governments, satirize corrupt or indifferent churches, strip bare the foul futility of war, attack exploitation, uncover the bleak existence of the poor and, in general, make visible comment on human folly in its infinite variations."

Her extraordinary skills are once again evident in her latest incarnation: Fairy Tale. In this newest body

of work, she continues to tell stories in the guise of the artist but, in reality, she is more of a psychologist, an ethicist, a sage. Traditionally and historically, storytelling, in the form of fairy tales, has existed in every culture as a way of assisting children to cope with the realities of daily living.

Toland not only has conjured stories that help us cope and confront the truth, but she also physically challenges our space with a scale that is so threatening, so overwhelming, and powerful that her message becomes even more aggressive 톨랜드의 전작(全作)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일종의 시대 정신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인물들은 가장 효과적인 가용 무기인 예술을 이용해 기성세대의 신경을 건드리 고, 폭압적 정부에 대항하며, 교회의 부패나 무관심을 풍자하고, 전쟁의 추악한 공허함을 낱낱이 벗기며, 착취 를 공격하고, 절망적 빈곤층의 존재를 드러내며, 일반적 으로 인간의 무한한 변화에서 오는 인간의 우둔함에 대 하여 시각적 의견을 개진한다."

톨랜드의 특별한 기술은 최신 작품 <동화>에서 다시금 분명히 드러난다. 작가는 아티스트로 가장해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실제 작가는 심리학자, 윤리주의자, 그리고

> 현자로서의 모습이 더욱 두드 러진다. 역사적, 전통적 관점에 서 동화 형식의 스토리텔링은 일상 생활의 현실에서 어린이 를 돕는 방식으로 모든 문화권 에서 존재해왔다.

> 톨랜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 현실에 대응하고 맞서는 데 도움을 줄 뿐아니라,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압도적이며, 강력 한 방식으로 우리의 공간에 규 모면에서 신체적 도전을 가함 으로써 작가의 메시지는 더욱 공격적인 동시에 설득력을 지



규모적으로 큰 도전이었던 실물 3배 크기의 <탐욕스러 운 왕>은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점 토의 '힘의 여정'은 고전 해부학 학습, 표면 세부내용에 대한 실험, 듣도 보도 못한 규모의 작품 제작 등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것을 마스터하는 작가의 끈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 작품은 아이러니, 패러디, 외설, 이미 경험했던 존재 에 대한 그로테스크가 뒤섞여 진정한 위협을 느끼게 만 and convincing.

The Greedy King is three times life size - a physical challenge that took Toland more than a year to complete. This 'tour de force' in clay is typical of her tenacious spirit to master whatever is required to accomplish her vision - whether it be learning classical anatomy or experimentation with surface details or unheard-of scale.

The work is a mixture of irony, parody, obscenity, and the grotesque with a presence, that once experienced, is truly menacing. Toland tells us the work is based on a fairy tale she created in which "I made up a *Greedy King* whose pride drove him to pillage all the gold from the surrounding kingdoms to bring back and melt onto his crown. Over time the crown became so heavy and painful to wear it eventually broke his neck." Is it no

coincidence that the golden crown may be viewed as a metaphor for the blond hair of a former president a president whose egoism, greed and dishonesty knew no limits. A king with a crown so heavy that the

neck has receded so far into the body that it can no longer support a head - while all the while a gaze so calculating, a smirk so naked and an expression so virulent that it reminds one of a gluttonous Jabba The Hut.

In another piece, *The Three Sisters from Auld*, Toland offers life size self-portraits of a woman dressed for a night out. They are captured at the very moment of experiencing the impact of a pie thrown into their faces. Taken together, they

든다. 톨랜드는 작품의 모티브가 자신의 창작동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동화는 "욕심쟁이 왕이 오만함 으로 여러 왕국에서 모든 금을 약탈해 자신만의 왕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든 왕관이 너무 무겁고 쓰기 힘듦에도 계속 쓰다가 결국 목이 부러지게 된다"는 내 용이다.

금관은 어쩌면 끝없이 이기적이며,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전직 대통령의 금발 머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무게 때문에 머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몸속 깊이 들어가 버리도록 만든 무거운 왕관을 쓴 왕은 줄곧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노골적으로 히죽거리며, 너무나도 치명적인 표정을 짓는 스타워즈 캐릭터 중 하나인 탐욕스런 자바 더 헛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톨랜드는 또 다른 작품 <올드의 세 자매>에서 밤 외출을 하려고 옷을 차려입는 한 여성의 자화상을 실물 크기

로 선보인다. 이 작품은 얼굴로 던진 파이에 맞는 바로 그 순간의 충격을 묘사함으로써 함께 전시 되는 <탐욕스러운 왕>의 자만심과 균형을 맞춘다.

작품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굴욕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뺨에 묻은 라

임이 드레스로 떨어지는 모습에서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두 번째로는 초콜릿으로 인해 자부심이 초라함으로 바뀌는 치욕스런 표정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엄과 자존감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바보스런 웃음으로 표출되는 자기혐오와 굴복의 표정을 보게 된다. 어쩌면 톨랜드 자신이 세 자매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수도 있다.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기 위해 자신이나가족의 이미지를 일종의 자전적 디딤돌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슬랩스틱 코미디를 사람의 얼굴을 향해 던진 파

provide a counterbalance to the King's self anointed importance.

We see three expressions of humiliation. One of total disbelief as the key lime drips from her cheeks onto her dress. The second, a look of mortification as the chocolate transforms the ego into feelings of lowliness, and the third, a smile of self-loathing and submission, a sort of foolish grin that strips bare any sense of dignity and self-respect. As an aside, it is probably no coincidence that Toland comes from a family of three sisters. She often uses herself or family images as a sort of autobiographical steppingstone to give voice to the expression of her intent. While we associate slapstick comedy

with pies being thrown in people's faces, Toland, the satirist, uses the guise of humor to suggest another side, the receiving end, the bullied, the victim, the humiliated.

Finally, we come to a series of masks, taken from the faces of *The Three Sisters*, but each showing the face of the artist with a different expression and a different surface

treatment. Part of a larger series of *Masks*, some in color, others in black and white, these masks reveal the various faces that individuals can, but rarely show, the world. *Masks* are a format for experimentation, risk taking and personal challenge to present various states of expression in which the artist, with no preconceived goal in mind, creates a reversal in which normally hidden inner emotions become the outward masks for all to see.

In essence, by so doing, she has effectively reversed the role of masks. Brilliant.

이와 연관지을 때 풍자가인 톨랜드는 놀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피해자의 또 다른 측면을 유머로 가장하여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자매> 얼굴에서 비롯되었으나 작가의 다양한 표정을 다양한 표면 처리로 제작한 일련의 마스크를 마주하게 된다. 연작 마스크의 일부로서 칼라 및 흑백으로 제작된 이번 전시회의 <마스크>는 개인이 세상에 드물게 보여주는 여러 얼굴 표정을 드러낸다. <마스크>는 실험, 위험 감수, 개인적 도전 등 다양한 표정을 선보이는데, 작가는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감춰진 내면의 감정이 모두가 볼수 있는 외향적 마스크로 표출되도록 반전을 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본질적으로 마스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뒤집는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작가의 스타일이 공격적이고, 불편하며, 불손하게, 어쩌면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항상 열정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다. 톨랜 드에게는 예술과 작가의 구분이 없다. 예술과 작 가는 분명히 하나다. 더 욱이 톨랜드는 자신의 복 잡한 감정적 반응을 사 회 여건의 부정적 측면과 공유하는 데 주저함이 없 다. 좋게 말한다면 톨랜 드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

면서도 타인과의 연계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적 좌절을 드러내는 정신적 존재이자 실존주의자이다.

놀랍고 힘든 뉘앙스의 감정 표현과정에서 점토는 톨랜 드에게 이상적인 재료가 된다. 주름, 살결, 나이, 피부를 다룰 때에는 부드럽게 작업하지만, 불이 닿으면 부드러 운 모습으로 굳게 된다. 점토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피부"가 살처럼 보이도록 표면 처리를 할 수 있 다. 능수능란한 작가의 손에서 인체의 은유, 우리 시대 의 이슈 전달, 그리고 전 세계의 상황을 전달하는 데 점 While her style may be aggressive, disturbing, irreverent, and perhaps humorous, it is always passionate. For Toland, there is no separation between art and maker. They are clearly one and the same. Moreover, she is not afraid to share her complex emotional reactions to negative aspects of the social condition. For want of a better term, she is both an existentialist and a spiritual being-revealing personal turmoil in an attempt to resolve inner conflicts yet providing means to connect with one another.

In Toland's hands, clay becomes an ideal material to work her wondrous and laborious nuanced emotions. She works it soft recording wrinkles, flesh, age and skin - yet, when fired, it is hard, made to look soft. She is able to surface the "skin" to resemble flesh with all is flaws. In her masterful hands there is no better material to act as metaphor for the human body, to speak to the issues of our times, and the condition of the world.

Finally, it is important to no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k and its maker. To meet Tip Toland is to encounter a quiet, almost demure, non-assertive, non-confrontational individual. A person so different from the style and content of her work as to make one wonder how such powerful work could have emerged from this individual. It is this unlikely, but undeniable, juxtaposition that makes the work in this exhibition, in addition to all of its other splendid aspects, as extraordinary as it is.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Art and Art Professions New York University 토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다.

마지막으로, 작품과 작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팁 톨랜드를 만나면 얌전할 정 도로 조용하며, 주장이 강하지도, 대립을 좋아하는 사 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렇게도 강력한 작품이 탄생하며, 이렇게 다른 스타일과 내용으로 작품 세계를 펼치는지 의아하다. 의외이기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작가의 다른 모습은 여러 뛰어난 점과 함께 이 번 전시회에서 작가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미국 뉴욕대학교 예술학과 석좌교수

36 37